



잠 못 이루는 밤

유난히도 비가 많이 내린 여름을 보내는가 했더니 태풍 '매미'가 엄청난 피해를 끼쳐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이러저러한 일로 국민들의 마음이 밝지 않은 터에 재해까지 당하고 보니 가을 바람이 한결 스산하게 느껴진다.

요즘 인쇄경영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대화의 범위가 넓어졌음을 실감할 수 있으며 고민의 폭도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함을 알 수 있다.

4, 5년전만 해도 인쇄인들은 일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다시피 했는데 최근에는 방향을 놓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과당경쟁이라든가 기술인력부족, 자금난 등의 어려움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기업이 나아가야 할 길을 찾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좋은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위의 장벽이 너무 높아 좌절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심지어 특수분야 인쇄시설을 도입하고도 기술자를 구하지 못해 기계를 세워두는 사례도 있다.

이제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보를 취사선택하는 능력을 길러 개인의 판단력과 기업의 부가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순발력이 요구되는 시대이기도 하다.

다양해지고 있는 인쇄분야와 시설의 특성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선택을 한번 잘못하게 되면 그야말로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건너기 십상이다.

이미 수년동안에 걸쳐 프리프레스 분야가 알게 모르게 통·폐합이 이루어졌고 특수인쇄영역이 가까이 다

가오면서 변신을 시도하는 인쇄사들이 증가하고 있다.

인쇄물의 수출증대도 만만치 않다. 동남아 경쟁국인 일본, 싱가포르, 홍콩이 우리 앞을 내달리고 있는 가운데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도 우리 옆에 바짝 다가와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그런지 평생 해 온 인쇄업을 접거나 중도 하차하는 인쇄인이 부쩍 늘고 있다.

반면에 사명감을 지니고 적극적으로 파고드는 인쇄인도 적지 않다.

프리프레스부터 제책공정까지 뛰어다니면서 틈새 시장을 찾아가 하면 다품종 소량화 추세에 대비하면서 정보수집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인쇄인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결국 인쇄물수주, 인쇄물의 종류, 다양화 가능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시설을 도입해야 하며 대형기계보다는 다기능 인쇄기에 관심을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필연적으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기술인력의 소수정예화에 따른 품질향상이 성공의 키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매사가 그렇지만 이야기하기나 글로 쓰기는 쉽지만 막상 실천에 옮겨 성과를 거두려면 남다른 열정과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래저래 가을밤에 잠 못 이루는 인쇄인이 많을 것 같아 걱정스럽다.

〈오세익·편집주간〉

다양해지고 있는 인쇄분야와 시설의 특성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선택을 한번 잘못하게 되면 그야말로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건너기 십상이다. 매사가 그렇지만 이야기하기나 글로 쓰기는 쉽지만 막상 실천에 옮겨 성과를 거두려면 남다른 열정과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